

제3-1 조선 시대 지방도시 읍성의 공간구조

조선시대 지방도시 읍성의 공간구조

◆ 1. 약: / 1. 형
적 해석을 시도하여 본 글이다.
도시의 공간적 ‘原形’ 元型 ‘核’, 독특한 장소성과 역사
성을 갖는다. 조선시대 성곽으로 지방도시에 해당하는 ‘읍성’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에
그 흔적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는 퇴색된 채 개발에 밀려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
다. 도시 ‘원형’으로서의 역사성 . 인간성을 강조한 계획원리를 찾아 보존해
야 한다. ? 1. 상적 측면이 간과되어 있어 전통적 계획이념과 원리의
추출 해석 계승이 절실하다.

- ① ‘음양오행’과 ‘풍수’라고 하는 전통적 공간원리에 의한 원형적인 입지였다.
- ② 현재의 도시가 ‘面的’인 ‘面的’ 규모로서 도시의 유기체적 원형이었다.
- ③ 읍성 안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격자형 도로망의 원형이었다.
- ④ 주거지역은 신분에 따라 ‘경계’와 ‘영역’을 갖는 ‘군집’과 ‘분리’로서 주거지의 원형적 패턴이었다.
- ⑤ 공공시설의 기능에 따른 배치는 현대 도시계획의 시설배치 원칙이나 지역지구제의 원형이었다.
- ⑥ 위곽 형태는 둥근 원이나 사각형 등의 기본 도형을 응용한 기하학적 패턴의 원형이었다.

따라서 도시 재구조화(,) ? 원을 명문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 , 공간해석을 통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왜 성곽인가?

‘城郭’은 글자의 형성과정이나 공간구조상의 확산? !전과정으로 볼때 ‘계획된 도시의 공간적 原形(核 core)’ , 성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산업형 폐쇄도시의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공간구조를 갖게 되지만 그 자체로서도 독특한 장소성(genius loci) , , 산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都城’ , ‘邑城’의 공간구조는 각기 ‘독특한 역사적 과정(unique historical process)으로서의 도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왔다. 특히 도성에 비하여 압도적인 숫적 우세에 있는 읍성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도시 중에서도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역사적 原形體(prototype) , < 1> 따라서 도시발달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성곽이, 지금은 그 기능이 대부분 소멸된 만큼, ‘ ,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성을 통한 도시재생에도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주로 역사적?태적 입장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던 성곽에 대한 공간해석의 틀을 정리하고, 도시의 역사적 공간구성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하여 현대적 도시형태로 발전? , 그러한 도시의 역사적 형태와 현대 도시계획에 의해 변화된 형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도시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 도시원형적 공간 해석과 활용을 위한 논의의 시작일 뿐이며 도시담론적 화두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 原形 ‘元’ 元 原 源 등 다양한데 도시의 근본 형태라는 근원적 의미에서 오늘날의 대도시가 과거의 성곽을 모체로 하여 성장? , ? ? !천적 형태가 성곽이라는 추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元型’ (archetype) , 심리학 등에서 쓰이며, ‘原形’ ‘ (original form) !로 진화하지 않은 자연 상태를 말하며, ‘元型’ ‘ ‘源形’ ‘原形’ 을 쓰기도 한다. archetype, prototype, genotype 등으로 엄격한 구분은 분명치 않으며 archetype prototype - , 1996, , 울산대출판부 참고

성곽의 의미와 해체

1) : 경계와 영역성

‘城郭’ ‘城’ ‘郭’의 합성어로, ‘외적방어를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의 주위나 거리를 土 石 塼 延長體’ , 고대로부터 도시의 지배계급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것을 ‘城’이라 하였고, 민가가 성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를 다시 둘러쌓는 것은 ‘郭’ 廓 . 일반적으로 ‘城’ 內城 ‘城郭’ 內 外城 : 통칭하나 흔히 혼용되고 있는데, ,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말이 ‘城’으로 우리나라를 ‘성곽의 나라’라 일컬었다. (關防 邑治 : 위한 행정용으로서, ‘ ? , , 일정한 공동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fort, fortress, castle, wall , 우리나라의 성곽은 성벽으로 일정공간을 둘러친 점으로 보아 ‘wall’ (=walled-town) . 따라서 성곽은 ‘의도적인 공간구조를 갖는 도시의 폐쇄적 原形’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도시는 하천이나 산 등의 자연 지형이 경계였고, 중세에는 성곽이 명확하게 도시의 경계를 결정하여 안과 밖을 구별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그러한 경계가 무의미해져서 현대에는 하나의 도시에서는 물론 여러 도시 사이에서도 행정적 경계만 존재하는 사이버 도시까지 출현하였다. 神 王 (), , 카침내 경계가 없는 超都市 super city) , 개방구조에 맞는 새로운 공간설계방법을 찾지 못하면 ‘경계의 소멸이란 곧 도시의 멸망’이라는

우려와 함께, ‘ ’ (boundary) ‘ ’ (territory) | 대한 역사적 의미와 원형론적 해석을 통하여 도시의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추출이, 도시에 새로운 공간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성곽은 건축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공- , 성곽 내- , 성곽 기능의 소멸 후 이러한 경계와 영역이 해체되면서 도시의 독자성? ? 소성도 동시에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어, 특히 규모가 작은 지방도시에 해당하는 읍성의 경우가 심각하여 이러한 성곽의 역사적 의미와 진화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여 보존?

2) 성곽과 도시의 확산

-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팽창 확산

전통적으로 성곽은 안(城内) 城外 | 구분이 확연하여 기능이나 토지이용 상으로 상이한 공간구조 패턴을 보이는 명백한 폐쇄구조였다. , 혹은 도시와 농촌을 구별케 하는 표상이기도 하였으나, 성곽의 기능이 소멸된 후 도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방구조로 바뀌면서 현재는 성곽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영역’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형적인 한계나 도시계획적인 규제만 없었다면 무제한의 외연적 확산(sprawl) , 확산의 물리적 장애였던 성곽이 사라짐에 따라 과거의 읍성이 갖고있던 공간구조는 자연히 도시발생의 ‘원형적 이미지’(archetypical images) 공간으로만 남게 되었다.

* ‘ ’ (archetypical images) 보충 설명

Kevin Lynch | 다섯 가지 도시 이미지 요소를 가지고 조선 시대 읍성의 공간 구성을 대비시켜 본다면, ① ② 卜 방향 도로의 접합점은 물론, node, ③ ? 卜 분된 토지 이용과 신분에 따른 주거지역 등이 district, ④ ‘城’ ‘郭’ 沿道 등이 edge, ⑤ 卜 읍성 안에서 가장 큰 규모였을 객사와 동헌 등의 중심 건축물 등이 읍성의 landmark .

한편 성곽의 형태로 형성? 卜 전하였던 도시는 근대 이후 각종 도시계획적 요소의 도입으로 본래의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읍성의 경우 15~16 19 新 改築 日帝 강점기의 도로 신설을 빙자한 성곽의 자의적 ‘철취’(撤毀 20 |기 중반부터 시작된 개발 지상주의의 희생양이 된 전통공간의 무지한 훼손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중심적 정체성에 있어 절대적인 위상을 갖던 전통공간 요소들의 온전한 자리 매김을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수 차례에 걸친 철거와 훼손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곽이 입지했던 곳은 도심부 공간으로 형성되었고 동시에 급격한 토지이용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성곽 안팎의 주거지나 토지이용 패턴이 확연하게 구분되던 것이 성곽의 해체와 변형으로 그 전통적 기능이 사라지면서 도시 공간은 끝없는 외연적 확산 과정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이했던 성곽 안팎의 토지이용 패턴이 동일하게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 2>, < 3>

도시 발달 과정에서 성곽은 도시의 절대적인 공간적 방어 및 圍繞 (enclosure) 수단으로 존재했고 도시의 기능적? (frame) , ()
계) 膨脹擴散 連擔化 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식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근대 이후 새로운 서양식 패러다임의 도입에 따라 계획 원리나 조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성곽 내외부 일원은 구도심부로 형성되기도 하고, , 장소성이 있는 보전이 필요한 도심부로 존속하여 오다가, 20 1기에 들어와 대부분의 도시들이 구도심부의 무질서와 비효율화로 인한 물리적 쇠퇴,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이제는 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再構造化’ (restructuring, renewal) . < 4>

따라서 성곽이라는 전통적 공간요소가 한 도시의 발생론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 , ‘역사적 원형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계획 패러다임’ 이나 ‘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지침(guide line)’ .

* ‘再構造化’ (restructuring, renewal)

울산의 구도심부 일원에 입지해 있었던 ‘울산읍성’의 경우, 외곽은 모두 사라졌으나 읍성의 중심 시설이었던 ‘동헌’은 이미 복원되어 도심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역사적? , 최근 구도심부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객사가 있었던 현 울산초등학교는 혈려 대학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어, 역사적 공간 인식과 활용방법이 아쉬운 실정이다.